문화유산 지킨 선조들 삶 소설화

장편 실록 '문화재 비화' 상·하권 출간

행간마다 '문화재 사랑' 중요성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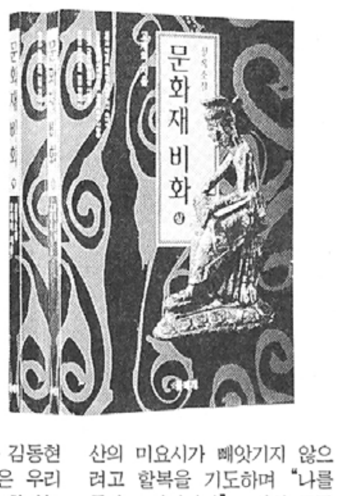
임란·일제등 문화재 약탈과정 그려

"1909년 가을이었다. 당시 2대 통감으로 있던 소네 아라스케가 고관들을 대동하고 불국사를 거쳐서 석굴암까지 다녀갔다. 오층석탑과 감실의 보살상이 없어진 것은 그 직후였다." "일본인 오구라는 일제당시 기와집 2백5십채 값인 50만원이란 거금으로 고구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118호)을 사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김동현옹은 이를 뿌리치고 56년간이나 이 불상을 지켰다." "1906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는 경천사지십층석탑(국보 86호)을 자기 집 정원석으로 쓰려고 일본으로 불법반출시켰다가 뒤에 총독부의 조사와 여론에 밀려 다시 반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속유물 수장가로 평가받는 김동현옹(88)의 일생을 축으로 민족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친 선각자들의 투쟁기와 민족문화유산의 수난사를 다룬 책이 나와 화제다. 그것은 호암미술관 고미술운영실 고제희 과장(38)이 쓴 장편 실록소설 〈문화재 비화〉(전 2권·돌베개 刊).

이 책은 수 천년 동안 우리 민족에 의해 창조·향유되어 온 문화유산들이 임란과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약탈되고 파괴되었는지를 소설형식을 통해 리얼하게 보여준다. 또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국보와 보물들이 어떤 우여곡절과 사연을 겪어왔는지를 증언을 통해 흥미있게 엮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상당수가 조선총독부의 묵인하에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됐다. 그 결과 약 6만5천여점의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2만5천여점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약탈의 위기로부터 위창 오세창, 우현 고유섭, 간송 전형필과 김동현옹 등 몇몇 선각자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본인 수장가들에게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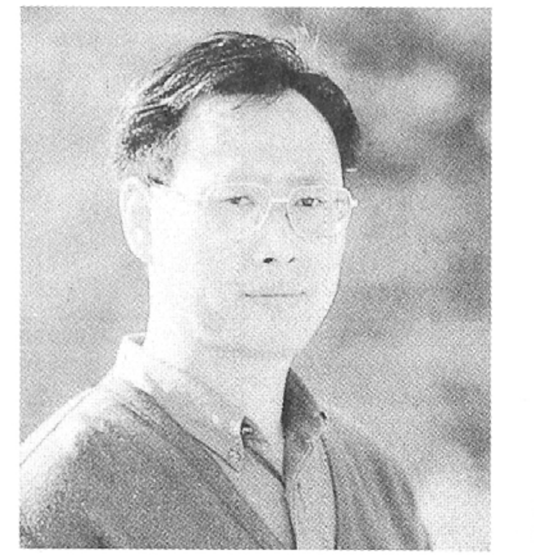
소설속에는 △대구의 악질적인 골동상 이치다가 일본으로 불법반출하려다 총독부의 조사로 뜻을 이루지 못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103호) △원산의 미요시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복을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고 외친 금동여래입상(보물 401호) △데라우치 초대총독이 빼돌린 규장각 고서들 등등 국보와 보물에 얽힌 뒷이야기가 가득 실려있다.

김재경 기자

소설 '문화재 비화' 저자 고 제 희 씨

"문화재는 국토의 일부죠"

해외유출문화재 반환 촉매됐으면



"국민들에게 일제로부터 지켜낸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간헐적으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던 해외문화재 반환청구 논쟁에 이 책이 새로운 촉매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실록소설 〈문화재 비화〉를 펴낸 고제희씨(38)는 "문화재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땅을 지키는 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며 "문화재는 곧 국토"라고 강조한다.

고씨는 "김동현옹처럼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문화재를 지킨 선각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아 오는 일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고씨는 현재 주말마다 전국의 정자와 성현들의 묘를 찾아 현판과비문을 해석하고 관련문헌을 정리하는 등 '선현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를 쓰고 있다.

〈재〉

'지리산 자락' '…남한강' '우리비경…'

답사안내서 3권 나왔다

여행하기 좋은 봄날에 3권의 답사여행 안내서가 동시에 나왔다. 문화유산답사회(회장 유홍준)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6, 7권 〈지리산 자락〉과 〈경기남부와 남한강〉(돌베개 刊), 최진규의 〈우리 비경 답사기〉(태일 刊)가 그것.

박종분씨가 쓴 〈지리산 자락〉은 지리산 품속에 살포시 안겨있는 곡성·구례지역의 고풍스런 산사와 부도 등 50여곳의 문화유산 현장을 2백여컷의 사진과 상세한 여행정보를 통해 소개했다. 남한강줄기 곳곳에 배어있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가는 〈경기남부와 남한강〉은 여주 남한강변의 서정과 안성 미륵동네의 오붓한 절등을 김희균씨가 소개했다. 〈우리 비경 답사기〉는 생태학자인 저자가 경주 골굴암과 경북 봉화의 앉은 돌부처 등 전국을 돌며 발굴한 36곳의 알려지지 않은 비경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출판소식

고교 불교교과서 간행

교육개혁위원회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대폭 개정된 고등학교 〈종교(불교)〉 교과서가 나왔다(대원정사 刊).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29일 서울시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이 교과서는 열려있는 종교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전반을 알기쉽기 조명해 일반 불교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02)754-1614

계간지 '고경' 창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스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가르침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간지 〈古鏡〉을 창간했다.

〈古鏡〉창간호에는 혜암스님(해인총림 방장)의 창간법어, 본지풍광 평석,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의 '성철스님을 보는 시각에 대해', 송석구총장(동국대)·문향옥씨의 '나의 삶 나의 기도'등이 실려있다.

한길사상서 4권 나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길사'는 2005년까지 위대한 지적 유산을 남긴 동·서양 사상가들의 고전 2백종 3백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아래 '한길 그레이트북스'를 기획, 최근 1차분 4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1차분 4권은 라다크리슈난의 〈인도철학사 1〉,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 에드먼드 리치의 〈성서의 구조인류학〉등이다.

한길사는 이 기획에 불교관련 서적으로 찬드라 키르티의 〈명부론〉, 혜능의 〈육조단경〉,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의천의 〈의천문집〉. 지눌의 〈수심결〉을 포함시켜 번역·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와 타종교 비교분석서

인터네트 소개 '활발'

불교와 타종교를 비교 분석한 비교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히 출간, 동시에 인터네트에 소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출판학회 '휠'에서 출간한 〈불교와 그리스도교〉(Buddhism and Christianity) 스노우라이온출판사의 〈그리스도와 보살〉(The Christ and Bodhisattva), 전자잡지 〈불교실천윤리학지〉(JBE)에서 발간한 〈그리스도교와 불교에서의 정의〉(Judeo-Christian and Buddhist Justice) 등.

특히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저자인 헬멧 반 글라세넵씨는 이 책에서 종교자체를 유용한 정보로 간주하고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는가' 등의 질문들을 두 종교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http://world.std.com) 〈그리스도와 보살〉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통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라이라마 로버트투르만등이 설명한 보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했다 (http://www.well.com/~metta/ftp). 〈그리스도교와 불교에서의 정의〉에서는 전통적 성서와 팔리경전속에서 정의의 개념을 비교하고 실천불교안에서 정의의 모습도 언급했다.(http://www.psu.edu)

일본의 산희방불서림에서도 1백23년전 스리랑카에서 벌였던 빠나둘라 대논쟁의 영문판 〈그리스도교인가 불교인가〉를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남수미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3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 청	동 지
4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 토
7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8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	윤 주 억	밀 알
9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10	방한암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명찰순례(名刹巡禮)

가람은 불교건축을 대표한다. 가람이란 산스크리트어 'Sangharama'의 약칭으로 원래는 중원(衆園)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한역하여 승원(僧園 또는 僧院)이라 하게 되었다. 이 승원으로서의 가람은 원래 당·탑·가람이라고 하여 이들 3자는 각기 개별적인 것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가람이라고 하면 승원으로서의 가람에 당·탑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최완수선생의 〈명찰순례(名刹巡禮)〉는 일반인, 스님, 공부하는 학도가 불교문화 건축인 사찰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선생은 책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종합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가 사찰을 조목조목 풀어 열거해 나가야 사찰에서 역사의 숨결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은 여러 문헌을 기초로 해서 다방면의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으며,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이념이 살아있는 사찰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소생시키려는 작업이 〈명찰순례〉를 쓰는 목적이 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필자가 지난해 여름 부석사 답사길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여름의 저녁나절을 맞이한 시각이었다.

부석사 진입부의 사과밭을 지나 범종루에 이를 때 마침 저녁 7시라 사물(四物)인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 범종(梵鍾)을 치는 장면을 직접 보게된 것이다. 우리 일행은 모두 범종루 앞 응향각 옆에 주저 앉아서 정신없이 사물이 내는 소리와 부석사 앞에 펼쳐진 대자연과 석양의 장관에 빠져 버렸다.

여기에서 시작된 부석사 답사로 막연하나마 사물의 의미를 되새겨가며 신라인의 석축(石築)기술에 감탄하였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의 기둥, 선묘각(善妙閣)에 얽힌 이야기, 부석(浮石)의 유래 등 모두 사전지식으로 읽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 이튿날의 새벽 산사(山寺)길까지 포함해서 정신없이 부석사에 대한 의미부여의 형식(?) 찾기에 바빴다.

이처럼 답사길의 사찰이 주는 불교문화이해의 길잡이가 되는 책자가 최완수선생의 이 〈명찰순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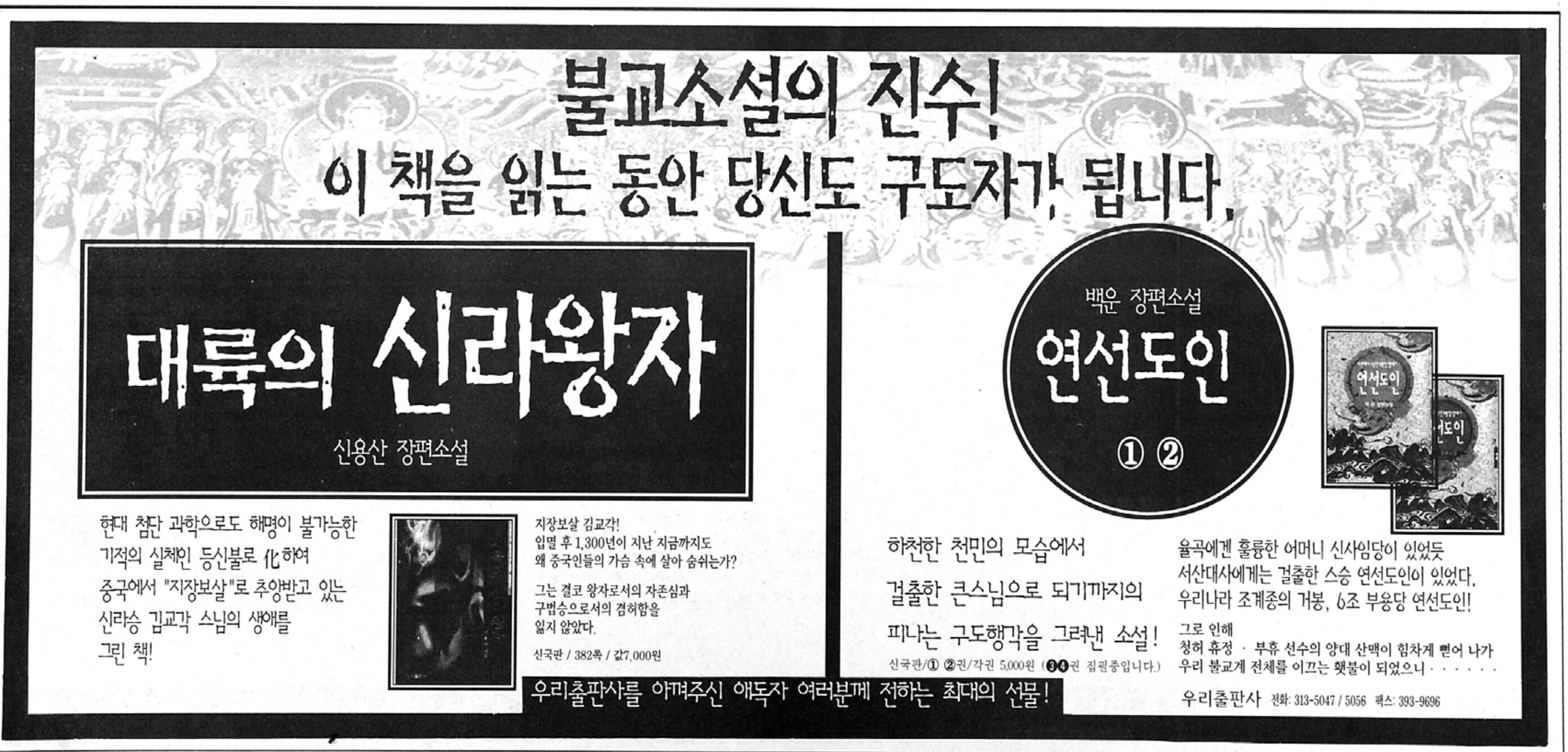
명찰순례의 대상사찰로는 우선 유서깊은 절이 선택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원고가 나가므로 일정에 맞추어서 지역 안배를 하였다 한다. 서울에서 왕복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먼저 고려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좋은 책은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관계되는 일에 부딪쳤을 때 길잡이로서 우선 떠올릴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많은 문화유적에 관한 책자들이 출간되고 있고 각 책마다 그 나름대로의 취할 점이 있지만 필자가 최완수 선생의 〈명찰순례〉를 추천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사찰을 피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명찰순례가 '우리 의·식·주가 살아있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박 경 자

〈삼풍건설 조경이사〉

불교문화 감상법 쉽게 기술

'사찰로의 초대' 안내서 역할